

[報 文]

別 監 服 小 考

李 京 子

梨花女子大學 美術大學 裝飾美術科

A Study on Byul-Gam Uniforms in Yi-Dynasty

Kyung Ja Lee

Dept. of Decorative Arts, Ewha Women's University

Abstract

Byul-Gam is a low-ranking official who takes charge of sundry services in Yi-Dynasty court, and escorts his king when he make a honored going. Uniforms of Byul-Gam are noted for their gaiety.

This study aims at inquiring into uniforms of Byul-Gam through historical records. The resultant findings are as follows:

1) Uniforms of Byul-Gam are divided into full dress and ordinary clothes.

2) The full dress has two kinds of style. One is Dan-Ryung, a kind of robe, clad together with Gun as a headdress. This robe is blue, Gun for king's Byul-Gam violet, and Gun for the Crown Prince's Byul-Gam blue. The other is a combination of yellow Cho-Rip and red Chup-Ri. This is a military uniform.

3) Ordinary dresses for Byul-Gam are orange Cho-Rip and red Jik-Ryung. Underwear in this case is Hyup-Joo-Um and Chup-Ri. Hyup-Joo-Um is a kind of robe. Inside it Korean style of jacket and slacks are usually clad.

4) As time passed, the uniform of Byul-Gam had been changed from Cheong-Dan-Ryung to Hong-Dan-Ryung, and Jik-Ryung had been shifted to a full dress.

5) Only five remains of Jik-Ryung for Byul-Gam have been handed down to us. The analysis of those indicate that they gradually became similar to Duru-Magi, a kind of Korean robe. This fact is common in the other transfiguring process of dresses of robe kind.

I. 序 言

別監은 朝鮮王朝 宮中 掖庭署에 所屬된 官職이다.¹⁾ 掖庭署는 宮中の 雜職機關으로 傳謁·供御筆硯·閉門鎖鑰·禁庭鋪設등을 맡아 보았는데 高麗때의 掖庭局을 이어 太祖元年(1392年)에 처음 設置하여 高宗 31年(1894年) 甲午更張때까지 存續했다. 여기 所屬된 別監은 그 職責과 所屬에 따라 大殿別監(202人—그중 武藝別監 156人), 中宮殿別監(16人), 世子宮別監(18人—그중 洗水間 3人·무수리間 3人), 世孫宮別監(10人), 處所別監등의 區別이 있었으며 임금이나 世子の 行次 때

는 御駕 옆을 侍衛했다.²⁾

이들은 비록 品官아닌 雜職이었으나 宮中の 大小行事に 쓰이므로 그 服飾이 華麗했고 임금이나 世子를 侍衛하는 職責에 있었던 만큼 그 威儀가 堂堂했다.

本論文은 이와 같은 別監들의 服飾을 考察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筆者는 經國大典(1469年)과 續大典(1746年)의 別監服條, 世宗實錄(1418~1450), 別監服이 보이는 末期儀軌등의 記錄을 比較檢討하며 漢陽歌에보인 承傳놀이, 類似한 服制가 보이는 尙方定例와 國婚定例의 記錄을 對照했다. 또 考察의 正確을 期하기 위해 秘苑所藏인 國宗 別監服 5點과 高六博物館 所藏인 團領

등을 實測하여 文獻記錄과 對比했다.

筆者가 別監服에 關心을 가진 것은, 이것이 朝鮮王朝時代 服飾중 가장 華麗한 男子服이었다는 點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服飾史研究가 거의다 上層階級の 特定服飾에만 集中됐던 傾向을 勘案하여 이제부터는 民庶服飾이 새로운 研究課題가 되어야 겠다는 自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려다.

II. 別監服의 制式

文獻에 보이는 別監服은 經國大典의 巾一團領과 草笠一直領, 續大典의 草笠一帖裡와 巾一直領, 世宗實錄의 幘頭一紫衣와 團領, 直領一腋注音一帖裏등이 있으며 歷代 嘉禮儀軌에는 草笠一天益, 巾一團領으로 記錄하고 있다(表 1).

이 가운데 經國大典의 草笠一直領과 世宗實錄의 直領一腋注音一帖裏등은 常服 또는 常時服으로 指示하고 있으나 別監服은 禮服類와 日常服이 大別됨을 알 것인데 禮服類의 着用例는 親享宗廟, 差備, 郊外動駕時등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禮服의 區別없이 옷의 種類에 따라 그에 對應하는 頭飾과 함께 考察했다.

(表 1) 文獻에 나타난 別監服

출처	冠	服	비 고
經國大典	紫 巾	青 團 領	世子宮則青巾條兒
	朱黃草笠	直 領	帶條兒
世宗實錄	幘 頭	紫 衣	親享宗廟時
	〃	團 領	差備時
	〃	直 領	
	〃	腋 注 音	
續大典	黃草笠	紅帖裡	郊外動駕
	紫 巾	紅直領	巾巾世子
儀軌 (一八一九)	黑袖頭巾	黑袖團領	
	黃草笠	紅天益	
	紫的袖頭巾	黑袖團領	大殿別監
儀軌 (一九〇六)	草綠袖頭巾	黑袖團領	
	黃草笠	紅天益	
	紫的頭巾	黑袖團領	大殿別監

(1) 團 領

團領은 別監服중의 禮服이며 그에 對應하는 頭飾은 巾이다.

經國大典을 보면 別監服은 紫巾一青團領一條兒로 記錄되고 있다. 이는 高麗史志二十六에 보인 別監服이

「紫羅頭巾一細條纏帶」

라 한 것과 一致하니, 別監服의 基本制式이 麗朝에서 朝鮮王朝로 傳承되고 있음을 알 것이다.

經國大典은 別監 巾制에 對하여

「世子宮則青巾」³⁾

이라 記錄하고 있다. 이는 別監의 團領은 모두 같으나 巾色으로 그 所屬을 分揀한 것이다. 度支志 嘉禮條와 儀軌記錄에 보면 大殿別監은 紫的袖頭巾, 世子別監은 黑袖頭巾의 區別이 있다.⁴⁾

儀軌의 記錄도 基本은 大典과 같으나 巾色에 異同 이 있다. 純祖 19年의 神貞后嘉禮都監儀軌를 보면 大殿別監所着은 紫的頭巾一黑袖團領이며 世子宮別監所着은 黑袖頭巾一黑袖團領이다. 光武 10年(1907年) 皇太子嘉禮都監儀軌의 大殿別監은 紫的頭巾一黑袖團領, 世子宮別監은 草綠袖頭巾一黑袖團領이다. 이로서 보면 別監服은 青團領이 黑團領으로 바뀌었고 世子宮別監의 巾色이 靑→黑→草綠으로 變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時代에 다른 變遷이라 볼 것인데, 續大典에

「世子宮嬪宮則白巾」

이라 註記가 있어 儀軌와 一致하니, 王朝中期에 이르러 世子宮別監 巾制에 變改가 있음을 알겠으나 團領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다.

別監의 團領은 冠服의 團領과 같은 形制의 옷이니,⁵⁾ 高麗大學博物館所藏인 官服團領 20餘點의 實物에서 등근것, 두리소매, 뒤로 넘어간 무등 그 形制를 確認할 수가 있다(圖 1). 다만 別監團領은 紬로된 옷감이나 條兒帶, 其他 附屬諸具에서 品職者와 區別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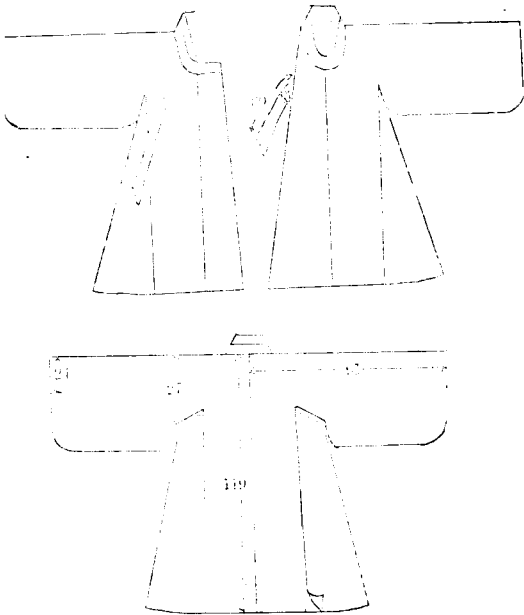
巾制는 皇太子嘉禮都監儀軌行列圖의 侍衛別監의 團領·巾着用 모습(圖 2)에서 그 형태를 파악 할 수가 있는데 無角巾이다.

(2) 紫 衣

世宗實錄에는 親享宗廟時 世子宮 6人에게 幘頭一紫衣를 着用케 한 記錄이 보인다. 別監服의 幘頭나 紫衣는 이것이 唯一例로 다른 文獻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紫衣는 語意만으로 그 形制를 斷定할 수는 없으나 經國大典등의 記錄에 보인 團領과 帖裡, 直領중에서는 같은 禮服인 團領과 相通한다고 생각한다.

幘頭는 高麗朝以後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文武官 公服에 着用된 冠帽로서 그 形制는 긴 平脚을 가진 紗帽



(圖 1) 圓領實測圖
高麗大學校博物館藏所



(圖 2) 侍衛別監
皇太子嘉禮都監儀軌

와 같다.⁹⁾ 高麗 高宗代에는 이 것을 奴僕에게도 許用하고 있으니¹⁰⁾ 上下區別 없이 널리 着用이 됐던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그 制式에는 上下階層간에 差異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되나, 公服幘頭와 別監幘頭に 어떤 制式差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經國大典등의 制式과 다른, 幘頭—紫衣의 構成

은 一般的인 意味의 別監服이 아니요 親享時 傳旨에 따른 臨時着裝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이 경우의 幘頭—紫衣는 幘頭—廣袖袍의 公服制度和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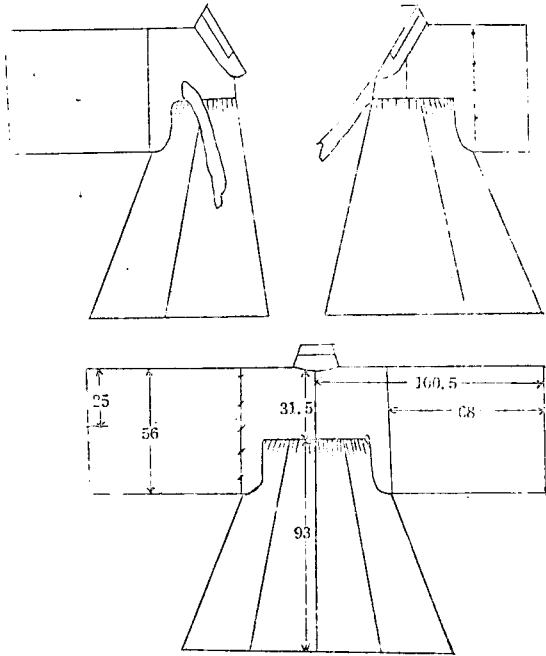
(3) 帖裡

續大典은 郊外動駕時的 別監服으로 黃草笠—紅帖裡를 記錄하고 있다. 各儀軌에는 世子宮嘉禮時的 別監服으로 黃草笠—紅天盆이 보인다.

帖裡나 天盆은 帖裏·天霽·철릭이라고도 하는데 그 形制는 深衣와 같은 上衣下裳의 連屬衣로서 袍의 中衣, 日常服의 表衣, 戎服의 表衣등으로 多樣하게 쓰였다¹¹⁾ (圖 3).

草笠은 崔南善의 朝鮮常識에

「黃色溫潤·無節細莖의 一種 草로써 듯자리 겹뜨기 겨러 만든것, …그 形은 대우와 양태가 분명하며… 양태가 우호로 비드러져 올라갔다…」



(圖 3) 帖裡實測圖
秘苑博物館藏所

「草笠은 본대 샷갓·방갓·패랭이로부터 後世의 黑笠으로 옮겨 가는 笠制發達上의 一階段인 것으로서…」

라 한 것으로 그 形制와 變遷을 알 수가 있으니, 別監服草笠에 對하여는

「經國大典에는 또 別監의 制帽는 朱黃草笠으로 하는 規定이 있더니 언제부터인지 다른데서는 다 廢棄하야 쓰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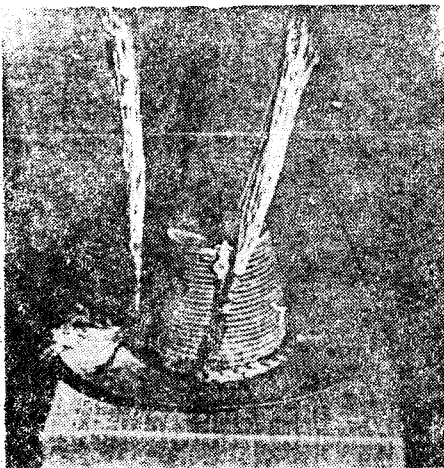
라 하고,

「近世에는 別監도 제色대로의 草笠을 쓰고 이밖의 宮中の 細樂手와 司僕의 牽馬陪와 胥吏의 起復時와 倡優의 演藝席에 이것을 쓸 뿐이라가…」

라 했다. 또 朝鮮常識에서도 引用한 李濟臣(中宗 31・1536~宣祖 16・1538)의 淸江先生條鱗瑣語는 中古 우리나라 士人이 淡黃色 草笠을 쓰기를 마치 지금의 上殿別監등이 쓰는 것과 같았다고 記錄하고 있다⁹⁾(圖 4).

이로서 보면 草笠은 王朝初에는 上下없이 通着하다가 차차 黑笠이 流行함에 따라 別監등 宮中下隸의 特徵인 冠帽로 王朝末까지 내려 온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의 黃草笠이 原型임을 알만하다. 그러나 度支志 外篇 卷之十七 王世子 嘉禮條에는 王世子別監服으로 紅天翼一黑草笠을 記錄하고 있음을 留意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黃草笠一帖裡(天益)의 構成은 철릭의 쓰임중에서는 戎服이 該當하는 것이니, 이는 動駕時 隨從者가 모두 戎服을 한다는 記錄으로 알 수가 있다. 또 別監戎服은 그 基本이 品職者와 다를 것이 없고 品階가 色으로 區別될 뿐인데 郊外動駕時에는 品職者나 別監이 모두 紅帖裡를 입었다.¹⁰⁾ 그리고 度支志 外篇 卷之九 別監衣資條에 보면 紅天翼과 草笠은 한해 건너, 頭巾은 해마다 4차례 官級했으며, 動駕時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侍衛別監에게 따로 冒雨頭巾을 別途 支給했음을 알 수가 있다.



(圖 4) 草笠
秘苑 博物館所藏

(4) 直 領

經國大典과 世宗 實錄은 別監 常服으로 朱黃草笠一直領을 記錄하고 있다. 續大典에는 紅直領과 綠色直領을 적고 있는데 이에 對應하는 頭飾은 紫巾이다. 經國大典과 世宗實錄은 直領衣色에 言及이 없으나 漢陽歌에

보인 別監服色이

「초림밑에 팔괘 놓고…

다홍생초 고은 흥의…」¹¹⁾

라 한 것으로 보면 이 역시 紅直領으로 보아 틀림 없다.

여기서 留意할 것은 續大典에 보인 直領의 性格이다.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記述例를 比較해 보면 續大典의 直領은 禮服類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大朝儀時綠色」

이러한 綠直領이 禮服일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點은 禮服의 巾인 紫巾과의 對應으로도 例證이 된다.

그렇다면 經國大典의 紫巾一靑圍領의 別監禮服이 紫巾一綠直領으로 變遷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러나 續大典以後의 歷代儀軌도 別監의 嘉禮時所着으로 紫巾一黑圍領을 記錄하고 있으니 이를 斷定的으로 說明할 수는 없다.

한편 續大典은 常服을 따로 記錄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紅直領이 常服으로도 쓰였기 때문인가 한다. 따라서 別監禮服에 變遷이 있다해도 常服에는 變化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겠다.

別監服의 直領은 現在 5點의 實物이 秘苑에 所藏되고 있어 그 形制를 確認할 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 모시 紅直領인데 實測한 結果는 (表 2) 및 (圖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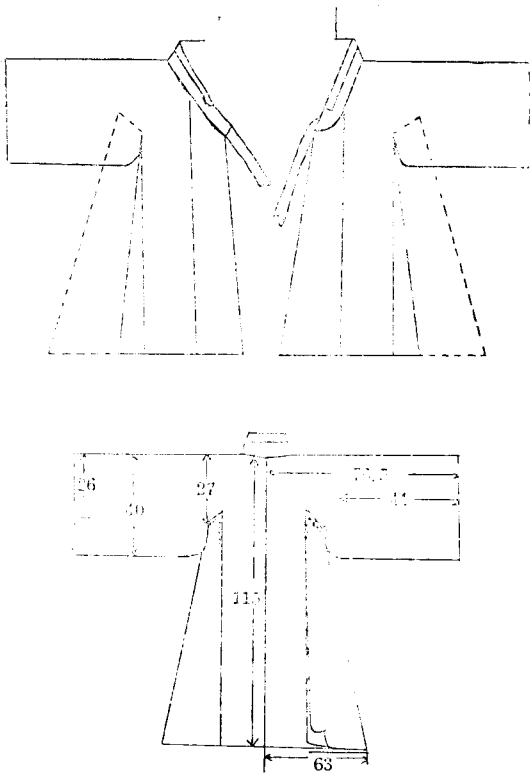
(表 2) 紅直領 實測

각부명칭	실물				
	實物①	實物②	實物③	實物④	實物⑤
총 길 이	115	111	116	115	109.5
화 광	76.5	70	78	74	57.5
진 동	27	26	30	27	28
소 매 넓 이	40	30	36	25	28
수 구	26	28	21	20	24
뒹 름	54.5	54	58	50	50
겉섶넓이(上)	11	10.5	13	11	11
겉섶넓이(下)	21.5	19	21	17.5	19.5
루 넓 이	35.5	37	31	16	18
	25	25.5	25	·	17
	31.5	33	35	33	34
안섶넓이(上)	7	8.5	7	8	8
안섶넓이(下)	16	18	17	14	16
깃 넓 이	8	7.5	9	8	7.5
고 대	18	19	18	19.5	18
동 정 넓 이	3	없음	4	4	3.5
옆 터 집	61	·	66	없음	없음
무	11.5	11	10	없음	없음
	9	9	7.5	·	·

이로서 보면 이들 紅直領은 (實物 1·2·3)과 (實物 4·5) 2群의 形制差가 있다. 즉 前者에 있어서는 무가 뒤로 넘어가고 트임이 있으나 後者에서는 무가 뒤로 넘어가지 않고 옆이 막혀 있다. 袖形은 前者가 두리소매인데 대하여 後者는 直배래이다. 前者가 本來의 紅直領의 形制를 간직하고 있다면 後者는 開化期 周衣形制이니 朝鮮常識에

「近世 鄉吏의 着用하는 直領에는 바로 두루막이에 廣袖만 단 것 같이 된 것도 있었다」¹³⁾.

고 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와 같은 形制變化는 官服團領에서도 發見되며, 이는 곧 高宗甲申服制改革 (1884年) 以後의 現象으로 볼 것이다.



(圖 5-1) 直領實測圖
秘苑博物館所藏

(5) 腋注音·帖裏

世宗實錄에는 別監常服인 直領의 內襲으로 腋注音一帖裏를 記錄하고 있다. 이밖에는 別監服의 內襲을 記錄한 例가 없다.

腋注音는 語意만으로는 어떤 形制의 옷인지 斷定할 수가 없다. 그러나 尙方定例의 衣襟나 嘉禮儀軌에 보인 中衣類중에 腋注音가 있으니 腋注音과 같은 옷이 아닌가 한다.

腋注音과 腋注音에서 注音는 우리말의 漢字表記일

것인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腋」이나 「腋」이 모두 겨드랑이나 겨드랑 밑의 비슷한 身體部位를 指稱하니 腋注音이나 腋注音는 옷 옆부분의 어떤特徵을 指稱한 것이라 볼 것이다.

腋注音가 腋注音와 같거나 비슷한 옷이라면 腋注音는 袍形의 받침옷이 된다. 그것은 尙方定例와 儀軌의 腋注音 衣次가 帖裏와 같기 때문이다.¹³⁾

이 경우 腋注音=腋注音는 繫衣에 該當한다 할 것이니 朝鮮常識에



圖 (5-2) 直領
秘苑博物館所藏

「...兩脇下가터져 三幅이 따로 도는 장옷이란...」¹⁴⁾이라 한 것으로 그 形制를 짐작해 본다. 그리고 腋注音의 衣次로 보아 그것은 大繫衣 즉 中致幕이라 할 것이다. 이의 뒷 받침은 漢陽歌에 보인 別監服중 「고운 흥의」의 받침 옷이 「숙초창의」로 나오는 것이다. 또 申潤福畫 「遊廓爭雄」에 보인 紅直領차림의 숙옷이 藍色袍(圖 6)인데 이것이 바로 腋注音이요 繫衣라 볼 것이다.

Ⅲ. 別監服의 構成

別監服의 着裝構成은 漢陽歌 承傳늘음條에 잘 그려져 있다.



(圖 6) 紅直領着用 모습
中潤福「遊廓爭雄」, 潤松文華集 수록.

「별감의 거동보소
난빈별감 백여명이
맴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사
편월상도 밀화동궁
대자동곳 섞어꽃고
굽게쁜 평양망건
의점박이 대모관자
삼의원 자리팔사
초립밀에 팔래놓고
남용사 증두리에
오동임식 꺼서달고
손뼉같은 수사갓끈
귀를가려 숙여쓰고
다홍생초 고운홍의
숙초창의 받쳐입고
보라수비 저고리에
의올뜨기 누비바지
양색단 누비배자
전배자 받쳐입고
금향수주 누비로사
전토시 받쳐끼고」

이는 바로 別監 常服 一襲이니, 그 構成은 草笠과 紅衣의 걸차림과 받침 옷인 襪衣, 그리고 바지—저고리—褶子의 속옷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시를 끼고 있다. 色彩構成은 걸의茶紅, 저고리의 보라만이 밝혀져 있으나 前述한 「遊廓爭雄」에서 보듯 襪衣의 색깔은 藍으로 推定이 되고 草笠은 黃 또는 朱黃이 定制다.

감은 紅衣의 生絹, 襪衣의 熟絹, 褶子의 兩色緞, 토시의 水紬등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嘉禮儀軌에서 別監의 禮服과 戎服감으로 紬만 썼던 것에 비하면 훨씬 豪華롭다.

또 秘苑의 別監服 實物은 모두 모시 直領이니, 아마 季節에 다른 감의 差異라 생각한다.

이밖에 文獻에는 巾—圓領의 禮服과 草笠—帖裡(天益)의 構成이 보이는데 그 內襲은 漢陽歌에 보인 常服의 경우와 大差없을 것으로 推定된다.

이상과 같은 別監服의 構成은 그 基本에 있어서 宮中禮服이나 常服, 士大夫服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 一次의인 共通點은 表衣의 中國式袍와 그 속에 입은 國俗衣袴로 特徵지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中國式袍를 表衣脫皮하고 國俗袍衣袴가 形式昇格하는 變遷過程을 밝게 되는 것이다.

IV. 結 言

別監服은 禮服과 常服으로 區分해 볼 수가 있다.

禮服은 親享宗廟 郊外動駕 差備時 등 特別行事項의 옷으로 그 基本은 巾과 圓領이며 草笠과 帖裡(天益)의 戎服이 따로 있다. 幘頭와 紫衣의 別監服 記錄이 보이거나 이는 例外에 屬한다.

常服의 基本은 草笠과 直領이며 直領의 一襲은 直領—腋注音—帖裏이다. 腋注音은 腋注音과 같은 袍形으로 襪衣=中致幕類로 推定이 된다.

時代的으로 볼때 別監服은 部分的인 變遷을 보인다. 첫째는 禮服인 圓領의 衣色이 靑에서 黑으로 變하고 世子宮別監의 巾色이 靑에서 黑으로, 國末에는 다시 草綠으로 바뀐 것이다. 둘째 變化는 續大典에 이르러 直領이 禮服으로 昇格이 된 것이다.

全體的인 흐름으로 보면 別監服의 形制는 袍類가 開化期 周衣로 集成되는 것과 같은 傾向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 點은 直배례形 紅直領의 實物로 確認이 된다.

이상의 考察은 大部分 文獻史料에만 依存했기 때문에 좀더 具體的이고 實證의 結果를 얻을 수가 없었다. 漢陽歌등에도 보인대로 別監服의 한 特徵은 그 華麗한 附屬諸具에 있는데 이에 對한 考察은 文獻史料로는 不可能하다. 史料의 充實을 기다려 보다 알찬 研究가 있기를 期約한다.

引用 文 獻

- 1) 大典會通, 卷之一, 吏典
- 2) 經國大典, 刑典, 闕內各差備, 別監條.

大典會通，刑典，闕內各差備，世孫宮條。
度支志，外篇十九掖庭署所屬斗 奎章閣員役等 給料條。

3) 經國大典，卷之三，禮典，儀章。

4) 皇太子嘉禮部監儀軌(1907年)

別監十二人所着。

紅天盆十二件

黑絨團領十二件

草綠袖頭巾十二件

黃草笠十二部

大殿別監十六人所着

黑絨團領十六件

紫的頭巾十六件

度支志外篇 卷之十七 王世子 嘉禮條

5) 崔南善，朝鮮常識，123.

6) 柳喜卿，한국복식사연구, 138.

7) 高麗史志卷第二十六，與服。

8) 拙稿，朝鮮朝中後期 宮中服飾의 研究。

9) 崔南善，前揭書，118.

10) 大典會通，卷之三，禮典。

11) 漢陽歌

12) 崔南善，後揭書，124.

13) 拙稿

14) 崔南善，120.